

이슬람 근본주의, 살라피 운동과 한국의 이슬람

1990년대 한국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말과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라는 말을 널리 사용해 왔다. 아랍인들은 “근본주의(fundamentalism)”라는 말은 1920년 미국의 개신교에서 사용한 말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에서 이 단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늘날 아랍 이슬람 국가에서는 근본주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슬람주의(Islamism)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현대 아랍어 사전에서는 fundamentalist(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는 말은 아랍어로는 ‘무타잠미트(mutazammit)’와 유사하다고 했다. 무타잠미트는 “종교나 견해나 행동에서 과장되게 과격한 자”¹를 가리킨다. 그동안 학계에서 원리주의자를 아랍어로 ‘우썰리야’라고 옮겼다. 아랍 무슬림들은 원리(우썰)들을 지키는 자들이므로 이슬람의 원리들을 지키는 자라는 뜻에서 무슬림들은 원리주의자²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아랍어 ‘우썰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주의(원리주의)와 그 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랍인 무슬림들은 사회와 정치 생활을 인도해 주는 이데올로기를 ‘이슬라미(이슬람주의)’라고 한다. 무슬림 형제단과 살라피 운동이 이슬람주의에 속한

다.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를 인도해야 한다는 정치적 운동이다. 현대 이슬람주의는 대중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이 아랍 혁명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 속에서 각 아랍 국가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³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종교 안에서 종파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앙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슬람주의 무슬림들은 아랍 사회가 이미 세속주의 사회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국가를 장악하여 이슬람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랍의 봄 이후에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주의 물결(tayyar islami)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으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한 때 정권을 잡았다.

아랍 혁명 전에는 일부 무슬림들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여 ‘종교는 알라(Allah)에게 국가는 모두에게’라고 했으나 아랍 혁명 이후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한 때 이슬람주의자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몸을 사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초기부터 살라피 사상을 가진 무함마드 본 압둘 와합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 그의 이름을 따서 ‘와하비즘’이라고 한다. 와하비 무슬림들은 수피 무슬림과 시아 무슬

1. Ahmad Mukhtar Umar, Mu'jam al-lughah al-Arabiyyah al-Mu'asirah, Part 2, Cairo: Alam al-kutub, 2008, 994.
2. Manbar al-Islam, 77권 8호, 이집트 종교성, 2018, 3월, 56.

3. 공일주, 『아랍의 종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3, 5



림 그리고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박해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란은 사우디와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의 상위 5개 군사 강국에 속하지 못한다고 했고 사우디 교육제도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⁴ 순니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의 종주국 이란을 정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로 살라피 사상을 수출해 왔는데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유학하거나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순례를 간 무슬림을 통하여 살라피가 전해지고 있다.

살라피는 언어적으로 선조(살라프)의 전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⁵ 이슬람역사에서 살라피들은 여러 사상과 학파와 학설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서로 차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살라피들이 단 한 가지 운동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살라피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지배적

인 정의는 텍스트를 우선한다는 것이고 자주 견해와 유추보다는 텍스트의 자히르(표면적 의미)를 우선시킨다.⁶

살라피 태동기를 대표하는 무슬림은 아부 압둘라 아흐마드 이븐 한발(780-855)이다. 살라피의 발전기에 해당하는 무슬림은 이븐 타이미야(1261-1328), 이븐 까임 알자우지야 (1292-1350) 등이고 이들은 ‘알마수르(전해 내려 오는 것)’에 일부 이성적 관점의 요인을 포함시킨 무슬림들이다. 물론 이들은 텍스트와 알마수르의 내용을 우선한다. 현대 시기에 살라피 성향을 대표하는 것은 텍스트주의 성향이다.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합(1702-1792)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가 와하비 운동을 이끌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에 와하비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살라피 학설이 발전하는데 공헌한 신학자들 중에는 알자잘리(1111년)와 이븐 타이미야(1324년)가 포함되어 있다. 이븐 타이미야를 살라피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 현재 한남동 이슬람 모스크의 이맘인 이주화 역시 “본 논문은 꾸란과 예언자의 전통에 기초한 이븐 타이미야의 유일신 사상에 관하여 연구하며 그가 이론 이슬람 신학의 사상적 체계와 가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순니 이슬람 신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⁷ 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븐 타이미야가 순니 이슬람의 정통성을 확립해 주는 학자로 본 것이다. 그가 유학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는 살

4. Asharq al-Awsat, 14357호(2018년 3월 20일), 2면.

5. 공일주, 『이슬람과 IS』 서울: CLC, 2015 참조.

6. al-Mawsu'ah al-Islamiyyah al-Ammah, Cairo: Wizarah al-Awqaf, 2015, 765.

7. 이주화, 『이븐 타이미야의 唯一神觀에 대한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2005, 2


라피 사상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대학교였다. 메디나 이슬람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학교 비전을 아랍어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종교와 세상의 문제를 꾸란, 순나 그리고 살라프 썰리흐(선조)의 실천에 근거한다.”고 쓰여 있다.⁸

따라서 한국인 무슬림들이 살라피 사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주화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최영길 교수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의 책 『성꾸란』(또는 의미의 한국어 번역, 이슬람력 1417년)의 두 번째 페이지에 아랍어로 “파흐드 븐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이 기증한다.”라고 쓴 것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지원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다.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피 간의 관계는 상호반발, 삼투작용, 공생 등 세 패턴을 가졌다. 이슬람국가(IS) 조직의 이데올로기는 와하비에서 많이 끌어왔다. 살라피가 꾸란 구절을 극도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IS도 극도의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 최근 몇 십년간 와하비가 주류 순니 무슬림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⁹

살라피들은 반기독교, 반유대교적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극단적인 사상과 싸우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은 “극단적인 사상과 싸우는 것들 중에는 무슬림 형제단의 테러 조직과 싸우는 것인데 이런 사상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사상에 동조하는 자를 발본색원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이집트에서 망명한 무슬림형제단이 공교육과 사우디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일부 교사나 장학관 그리고 교육부 관련자들이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았고 일부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¹⁰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문화 행사, 대학 교육, 이슬람국가와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기업, 국내에 상주하는 이슬람 국가의 대사관, 국내의 모스크와 이슬람 센터 등을 통하여 이슬람관련 지식이 전해지고 있다. IS가 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패퇴를 시작하면서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들 중 IS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자들을 8-10년형을 언도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남아 있는 IS 대원의 자녀나 가족들을 송환하는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한국도 IS 조직원들의 입국을 사전 차단해야 하지만 이슬람학자들은 더 위험한 것은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상이 청소년들에게 주입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랍 이슬람 국가들처럼 국내에서 이슬람을 전하는 이맘이나 종교지도자들이 “중도적인 이슬람(와사띠야)과 온건한 무슬림”을 지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8. <http://iu.edu.sa/Page/index/20234> 2018년 3월 9일 접속.

9. Patrick Cockburn, *The Rise of Islamic State*, London: Verso, 2015, 35.

10. Asharq al-Awsat, 14359호, 2018년 3월 22일 3면